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도 변종 AI 바이러스에서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야마구치 야스시는 2월 1일 미야자키현 시토미에서 발생한 AI 역시 검사 결과 H5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마구치는 이어 “하지만 아직 이번 AI가 인간 감염이 가능한 H5N1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진 않았다”며 현재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4차례 AI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중 3건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했다. 앞선 3건(미야자키현 2건, 오카야마현 1건)의 AI는 모두 H5N1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 헝가리로부터 닭고기 수입금지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월 25일 헝가리에

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 계육 등 수입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일본의 포아그라의 수입처로서 프랑스에 이어 2위로 2005년 수입량의 44%가 헝가리산이다.

- 시사통신

헝가리

H5N1형 AI 발생 확인

헝가리에서 폐사한 거위에서 H5N1형 AI가 발견됐다고 1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Csongrad지역 발생농장의 나머지 거위를 살처분했으며, 3km내 보호지역, 10km이내 감시지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로이터

미국

맥도널드 트랜스지방 없는 튀김용 기름 개발 성공

미국 햄버거 체인업체 맥도널드는 지난 1월 29일 수년간의 실험 끝에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튀김용 기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의 월트 리커 대변인은 새로 개발한 기름이 미국 내 1만3천7백개 레스토랑에 언제 공급돼 요리에 사용될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단지 1천2백개소 이상에 배급돼 있다고만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해 발표한 새 조례를 통해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 모든 레스토랑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커 대변인은 새로 개발한 기름이 식물의 한 종류인 카놀라 성분이며 옥수수과 콩 기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맥도널드의 새 튀김용 기름 개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시카고 트리뷴은 이 회사가 지난 7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18종의 기름을 시험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맥도널드는 기름 교체로 인한 제품 맛의 변화를 우려해 트랜스지방이 제거된 새 기름 사용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경쟁사인 웬디스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8월 트랜스 지방을 완전 제거한 감자튀김용 기름을 선보였고, KFC는 4월부터 트랜스 지방이 든 기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 시카고 AP=연합뉴스



고가의 닭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베이징 청년보 등

현지 언론들은 먹음직스러운 닭요리가 무려 미화 3만6천달러(약 3천4백만원)의 세계 최고가로 공개되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나 하는 의문을 낫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닭은 최고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먹을 수 없다. 실제 닭처럼 보이는 정체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제공해 준다는 보석의 하나인 비취 원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중국 지난시 킬루 보석상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2.2kg 무게를 가진 비취로 만든 닭 요리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곁에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소개에 많은 부호들과 수집가들로부터 구매문의가 받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 리뷰스타

중국

'3천4백만원짜리' 닭(?) 공개

한화로 무려 3천4백만원에 달하는 세계 최

◆ 2015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중국은 2015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동물유래 전염병의 박멸을 위해 향후 2년간 10억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1월 17일 관영 통신(state media)이 전했다.

중국은 2003년이후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22명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보고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육수수와 수백만수의

가금이 뒤뜰에서 자유롭게 방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바이러스 퇴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심각한 동물질병을 통제 또는 심지어 박멸하기를 희망한다고 차이나 데일리지는 전했다.

중국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농업부 등이 5개 정부부처에서 이슈화된 계획처럼 국가 동물전염병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감독을 확대하고 더 많은 수의사를 교육할 것이라고 차이나데 일리가 인용했다.

- 관영통신

◆ 4세 남아 비명에 놀란 닭 443마리 ‘떼죽음’



4세 남자아이의 비명으로 발생한 황당 사건이 중국 언론과 CNN 등 세계 언

론에 의해 보도됐다.

지난 1월 24일 중국의 스테이트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동부지방에서 400여 마리의 닭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 원인은 짖는 개에 놀란 4세의 아이가 지른 비명소리였다고 한다.

마을주민에 의하면 “아이가 개 짖는 것에 놀라 한참을 양계장 창문에 대고 비명을 질러댔다”고 한다.

한 주민은 경찰관과의 사건 진상 수사에서 오히려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가 양계장에 대고 비명을 지른 것이

확인됐다고 모닝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법원은 이 남자아이의 비명소리가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소리였으며 그로 인해 443마리의 닭들이 두려움 속에서 서로 짓밟혀 죽게 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 사건으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양계장 주인에게 1,800위안(약 2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 고뉴스

홍콩

헝가리산 가금제품 수입을 잠정적으로 정지

홍콩특구정부 식물안전센터는 지난 1월 26일 헝가리공화국에서의 가금제품 수입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헝가리의 양계장에서 HPAI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홍콩은 지난 1년간 헝가리로부터 냉동가금육 및 내장 약 1,200톤을 수입했다.

- CN

인도네시아

AI 국가재난사태 선포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정부 예산에서 긴급구호자금을 따로 할당해 AI 퇴치 작

업에 투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6명이 AI로 사망,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63명이 AI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AI가 처음 발생한 2003년 이후부터는 적어도 164명이 숨졌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파스카 수제타 인도네시아 계획장관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AI 사태를 이미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했으며 곧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풍토병 수준으로 다뤄지던 H5N1 바이러스가 국가재난으로 인식되는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예산에서 구호기금이 마련될 것”이라며 “임시 방편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AI 대처 자금으로 올해 원래 계획했던 4,645만달러보다 약 1,500만달러 많은 6,100만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500만달러가 쓰였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AI 퇴치 계획에 3,500만달러를 지원했던 국제사회도 올해 2배에 가까운 6,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방역 당국은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가금류를 대상으로 AI 비감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 자카르타=로이터/뉴시스

◆ 주거지역 가금류 사육 금지 추진

세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AI 퇴치를 위해

주거지역 내 가금류 사육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아부리잘 바크리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AI 확산 위험지역인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 반텐주(州), 자바섬 등 4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거지역 내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점차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AI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5천5백만 가구에서 3억 마리의 가금류를 집에서 기르면서 사람과 가금류의 접촉이 잦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시티 파디라 수파리 보건부 장관은 살처분과 백신 접종, 계사 소독, 폐사 가금류 소각 등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주거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AI 발병사례를 보면 사람과 가금류의 접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간과 가금류 전염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거의 모든 형태의 AI 인체 감염은 죽거나 병든 가금류를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거나, 어른들이 도살 또는 깃털을 뽑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WHO는 특히 AI 바이러스가 인체간 감염형태로 변종을 일으킬 경우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 방콕=연합뉴스

콜롬비아

오리발 가진 닭 태어나 화제

콜롬비아에서 오리발을 가진 닭이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양계업자인 호세 레니포 씨는 시장에서 구입한 달걀을 닭장에 넣어 부화시켰더니 오리발을 가진 닭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또 이 닭은 수탉의 머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울 때는 암탉처럼 운다고 밝혔다. 레니포 씨는 6개월된 이 닭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애완용으로 계속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의사들은 이 닭이 유전자 변형때문에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닭이 오리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엄을 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 YTN

영국

'항암제 달걀 낳는 닭' 개발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던 로슬린 연구소의 연구팀이 항암제 달걀을 낳는 유전자 변형 닭을 만들어 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 변형 닭이 흰자속에 항암 성분이 든 알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닭의 알 속에서 생산되는 항암제는 암이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 면역시스템 단백질과 단일클로날항체(monoclonal antibody)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인슐린을 포함한 인체 단백질 생산

이나 낭포성섬유증(cystic fibrosis) 치료 약 생산을 위해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소나 양, 염소는 만들어져 왔다.

로슬린 연구소 연구팀은 얻고자 하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를 암탉의 오발부민(ovalbumin) 생성 유전자 안으로 삽입, 항암 단백질이 들어 있는 알을 생산하게 됐다.


연구팀이 선택한 단백질은 특히 관절염 치료제이자 피부암인 멜라닌종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단가클로날항체인 'miR24'와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며 종양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단백질 군에 속하는 면역시스템 단백질인 '인터페론- b-1a'였다.

연구팀은 현재 이와 같이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닭 500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밝히며 5년 후 환자 임상 시험을 거쳐 의약품 상용화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 가금류서 H5N1형 AI 첫 발생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30일~2월 1일 동부 서포크에서 집단 폐사한 칠면조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1으로 확인됐다고 2월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1차 역학조사에서 H5 계열로 나타난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한 결과 지난달 헝가리에서 발견된 H5N1형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야생조류에서 H5N1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된 적은 있으나 가금류에서 확인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 런던=AP/뉴시스